

지역화폐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Seoul

이창우

2013-PR-65

지역화폐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Seoul

연구진

연구책임	이창우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한소영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개인의 현명한 소비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공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유의 여러 대안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음.
- 서울에서는 이미 IMF 사태 직후인 1998년부터 민간단체가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다양한 지역화폐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음.
- 서울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혁신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지역화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지역화폐가 공유경제를 정착시키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지역화폐 관련사례를 조사함.
- 서울시 및 국내 지역화폐 실태 조사
- e-품앗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시스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주요 연구결과

2.1 지역화폐의 필요성

- 현 지역사회의 문제
 - 기존공동체 붕괴로 시민의 자조 기능 저하
 - 경제 세계화, 거품경제에 따른 지역경제 쇠퇴
 - 시민활동 영역 확대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 자원관리체계 확립
- 지역화폐의 역할
 - 신뢰에 기초한 상호교환과 비시장적 거래의 가치 평가
 - 지역발전과 자본축적 배제에 의한 지역 내 유통 활성화
 - 목적의식적 공동체 만들기를 이용한 시민 활동 지원시스템 확립
- 새로운 공동체 형성
 - 주민의 자기책임과 상호신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
 - 외부경제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확립
 -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힘입어 지역발전 모델이 확립된 지역에서 유통되는 통화 필요

2.2 지역화폐 시스템의 성공 및 실패 요인

2.2.1 성공요인

- 대전 한발레츠
 - 의료분야 특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면에서 실효성을 높임
 - 문화 운동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교육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 은평구 e-품앗이
 - 풀뿌리 운동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담하는 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 영국 브릭스톤
 - 브릭스톤 파운드 설계자인 윌리엄슨이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들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 일본 기타시바
 - 주민들의 공동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설계
- 예) 어른용 지역화폐와 어린이용 지역화폐를 구분하여 발행해 이들이 각자의 욕구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함.

2.2.2 실패요인

-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음.
- 사고 팔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화폐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음.
- 지역화폐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화폐 시스템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운영 관리를 하게 됨.

2.3 서울시 지역화폐의 문제점

- 행정 주도
-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 행정 주도 사업으로 추진
- 마을공동체와 연계 부족
- 벼룩시장이나 물물교환의 장치럼 운영되고 있어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마을공동체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획일적 운영 시스템
- e-품앗이 시스템을 통한 획일적 운영(15개 시스템이 거래 방식이나 내용뿐 아니라 지역화폐 이름까지 거의 같음)

- 단순한 프로그램
- e-품앗이 시스템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결합되지 못하여 마을공동체 강화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전략 부재
-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 부재

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판적 의견

- 마을공동체사업 개념 불명확
- 마을공동체사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워 함.
- 주민참여 부족
- 사업이 경쟁방식으로 선정되고, 성과와 평가 등이 행정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민과 행정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부족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이해,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사업의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공동체들에 편중될 수 있음.

3.1 서울시 지역화폐 제도 개선 필요

3.1.1 행정기관 주도 서울시 지역화폐 제도의 한계 극복

- 서울시 e-품앗이 시스템의 해결과제
-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에서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풀뿌리 공동체 기반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
- 벼룩시장이나 물물교환의 장처럼 운영되고 있어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자원봉사나 서비스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마을공동체 연계 강화 필요
-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지역화폐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지역화폐가 마을공동체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 극복
-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3.1.2 주민참여가 부족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계 극복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해결과제
- 지역화폐 거래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한계 극복 가능
- 마을공동체 사업의 심사, 선정, 평가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 주민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로 주민참여 촉진 가능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지역화폐 학교 강좌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 가능

3 2 **지역화폐를 통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3 2 1 **주민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
- 시민의 공감대 확산
- 지역화폐 관련 법제도 및 조직체계 정비

3 2 2 **마을공동체와 연계 강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지역화폐 마스터플랜 연계
- 마을공동체 단위 지역화폐 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을공동체 차원의 복지와 공동체 의식, 사회적 약자의 기초수요 고려
- 공동체 문화예술, 에너지절감 마을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운영
- 지역화폐 기반 마을기업 육성

3 2 3 **지역화폐 시스템의 개선 및 다양화**

- 기존 서울 e-품앗이 시스템 개선
-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시스템 실험 및 도입

3 2 4 **마을공동체 결합 지역화폐 프로그램의 다양화**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과 지역화폐의 연계
- 지역화폐 실패사례집 발간
-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지역화폐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2 5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

연구결과 시정활용 실행계획

4.1 연구결과의 활용유형

- 정책방향 제시 / 정책개선
 -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비전, 3대 목표, 5대 전략, 주요 사업 제시
 - 주민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안
 -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 연계 강화 방안 제시
 - 다양한 지역화폐 시스템과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지역화폐 프로그램 제안
 - 지역화폐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시
- 제도개선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품앗이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기타(정보전달)
 - 지역화폐의 국내외 사례 제공
 - 서울시 7개 자치구 e-품앗이 운영 담당자의 건의사항 정리

4.2 연구결과의 예상 활용계획

- 서울시 지역화폐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 복지재단의 e-품앗이 시스템 개선 작업 시 연구결과 활용

4.3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

-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과 관점의 통합

4.4 기대효과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
- 서울시 공유경제 정착에 이바지

차례

I	연구의 개요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4
2 1	연구의 방법	4
2 2	연구의 체계	4
II	지역화폐의 의의와 필요성	6
1	지역화폐의 개념	6
1 1	지역화폐의 특성	6
1 2	지역화폐제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8
2	지역화폐의 역사	10
2 1	지역화폐운동의 일반현황	10
2 2	지역화폐 연구의 흐름과 내용	11
3	지역화폐의 유형 및 분류	12
3 1	지역화폐의 유형	12
3 2	지역화폐의 분류	14
4	지역화폐의 의의	16
4 1	삶의 근원적 변화	16
4 2	지역경제의 활성화	16
4 3	환경보전 기여	16
4 4	지역의 문화 살리기	17
4 5	공동체의 재구성	17

III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20
1	해외 지역화폐	20
2	국내 지역화폐	21
2 1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시작	21
2 2	국내 지역화폐 현황	21
2 3	서울시 지역화폐	23
3	지역화폐 운동의 한계 및 실패요인	34
IV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	38
1	마을공동체 유형	38
2	국내 마을공동체 현황과 정책	40
2 1	중앙정부 시책	40
2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41
2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42
3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및 시사점	45
3 1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마을공동체 성공 사례	45
3 2	사례를 통해 본 성공요인 및 시사점	51
3 3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 활용방안	52
4	지역화폐를 통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55
4 1	주민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55
4 2	마을공동체와 연계 강화	55
4 3	지역화폐 시스템의 개선 및 다양화	56
4 4	마을공동체 결합 지역화폐 프로그램의 다양화	57
4 5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	58
V	결론 및 정책 제언	60
1	서울시 지역화폐 제도 개선 필요	60

1 1	행정기관 주도 서울시 e-품앗이 시스템의 해결 과제	60
1 2	주민참여가 부족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계 극복	61
2	지역화폐 제도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연계	61
3	연구결과 시정활용 실행계획	62
3 1	연구결과의 활용유형	62
3 2	연구결과의 예상 활용계획	62
3 3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	62
3 4	기대효과	62
참고문헌		63



표차례

표 2-1	지역화폐의 가치기준에 따른 분류	15
표 3-1	서울 e-품앗이 현황	24
표 4-1	구성형태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유형화	39
표 4-2	사업성격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구분	39
표 4-3	주민제안사업 현황	43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체계	4
그림 2-1	일반화폐와 지역화폐의 차이점	6
그림 2-2	지역화폐의 특성	8
그림 2-3	지역화폐의 역사	11
그림 3-1	세계 지역화폐 분포 지도	20
그림 3-2	성동구 거래 내역	25
그림 3-3	구로구 거래 내역	26
그림 3-4	은평구 거래 내역	27
그림 3-5	관계자 간담회	29
그림 3-6	은평구 e-품앗이 거래도 및 운영현황	30
그림 3-7	은평구 e-품앗이 모임	30
그림 3-8	강남구 e-품앗이 센터	31
그림 3-9	서초 품앗이 센터 운영모습	32
그림 3-10	송파 품앗이 거래 통장	33
그림 3-11	지역화폐운동의 실패 요인	35
그림 4-1	브릭스톤 파운드 홍보 리플렛	47
그림 4-2	브릭스톤 파운드	47
그림 4-3	다양한 업종의 상점에서 취급되고 있는 루이스 파운드	48
그림 4-4	지역 화폐단체 운영의 코디네이터 육성 방법	53
그림 4-5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주민 공유과제 해결 방안	54
그림 4-6	민관협력에 의한 구조 형성	54
그림 4-7	서울시 지역화폐 장기발전 전략 비전체계(안)	58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인의 현명한 소비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공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공유의 여러 대안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미 IMF 사태 직후인 1998년부터 민간단체가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다양한 지역화폐 시스템이 시도되고 있다. 서울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혁신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교역 체계를 통칭하는 말로, 두레, 품앗이, 계와 같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전통을 현재에 맞게 재구성한 다자간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지역화폐 역할이 중시되어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 제도의 가장 큰 목적과 이념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발행 화폐의 비인간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 시스템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정주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목적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현재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기관 주도의 획일적인 운영 방식을 지양

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 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지역화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지역화폐가 공유경제를 정착시키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1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
 -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지역화폐 관련사례를 조사한다.
- 현장조사
 - 서울시 및 국내 지역화폐 실태를 조사한다.
- 관계자 간담회
 - e-품앗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시스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2.2 연구의 체계



그림 1-1 연구의 체계

II 지역화폐의 의의와 필요성

- 1 지역화폐의 개념
- 2 지역화폐의 역사
- 3 지역화폐의 유형 및 분류
- 4 지역화폐의 의의



II 지역화폐의 의의와 필요성

1 지역화폐의 개념

1.1 지역화폐의 특성

지역화폐, 지역통화, 지역고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지역화폐 거래체계는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레츠)를 번역한 용어로, 회원 간에 돈이 없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¹ 지역화폐의 기본 전제는 모든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든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철학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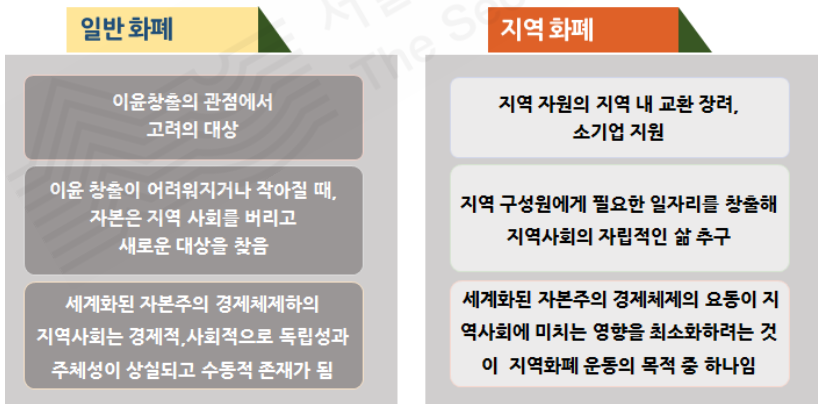


그림 2-1 일반화폐와 지역화폐의 차이점

¹ LETS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Local Employment Trading System, Local Energy Transfer Scheme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창우, 2002, 한국사회 지역화폐의 현황 및 과제, 전국 지역화폐 워크숍 “새로운 돈의 얼굴, 공동체 화폐 실험 이야기”.

지역화폐는 기존의 유사 제도와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다르다.²

첫째, 개인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갚아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지역화폐는 갚을 때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정을 통해 지역화폐가 회원 간에 돌다 보면 언젠가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원 중 누구와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역화폐는 자원봉사와 유사해 보이지만, 그 대가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남을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 받을 의도를 지니지 않는 것이 자원 봉사이다. 지역화폐도 다른 이에게 선물함으로써 스스로 기뻐지는 선물 경제의 논리에 기초하기에 자원봉사와 맥을 같이 하지만, 차이점은 봉사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계좌 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화폐는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이를 모두 기록해 놓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살다보면 이웃 간에 서로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화폐에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도움받기도 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주기도 하는 것 모두를 기록해 둔다. 예를 들면 이웃에게 망치를 빌려줌을 빌려주었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언제 얼마동안 망치를 빌려줌’과 같이 기록해 두지 않지만, 지역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놓는다.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를 돌려받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기록한다.

넷째, 지역화폐는 거래를 기록한다는 면에서 은행 계좌와 비슷하나 그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거래내역 공개의 원칙은 중요하다. 거래 내역의 공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 불성실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남에게 많이 제공한 사람은 계좌 잔액이 많겠지만, 이를 받기만 한 회원은 마이너스 잔액이 커지면서 다른 회원들이 이 사람과 거래를 꺼리게 된

² 이창우, 2009, “지역화폐로 만드는 행복한 서초구”, 서초품앗이 사업설명회 자료집.

다.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지역 공동체내에서 회원으로서 자격을 의심받게 되고 거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 사람은 공동체 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운동은 지역운동과 생태운동이 결합됨으로 결국 지역사회를 재발견하고 생태적 삶으로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폐

국가통화를 보완(혹은 대체)하여 특정 회원 간에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화폐



그림 2-2 지역화폐의 특성

1.2 지역화폐제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1.2.1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

지역사회개발론은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를 재건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관계망을 재구조화하는 기능적인 면을 중요시 한다. 지역화폐운동이 현대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도구나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경제체제가 아니라, 보완적

인 경제제도로써 지역사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이다.

1)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에서 본 지역화폐의 장점**

- ① 자립경제시장을 창출한다.
- ②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 내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 ③ 지역사회연계망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의 상호원조를 조직한다.
- ④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2) **주요한 구조적 특성**

지역사회개발론자들은 지역화폐가 ‘희소성’에 기반을 둔 화폐와 달리 ‘풍부함’에 기반을 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량실업 시대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수요는 존재하며 이를 제공할 노동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교환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화폐의 부족이다. 지역화폐는 화폐의 희소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풍부함에 기초한다. 지금의 화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정치적으로 분배하고 있어 일반 사람에게 부족하고 극소수의 이들에게 넘쳐나는 양극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화폐는 모든 이들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1 2 2 **생태주의경제론적 관점**

생태주의경제론은 지역화폐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운동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 환경주의는 관리적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이고, 생태주의는 생활양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생태주의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사회와 관련하여 지역화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 소규모 공동체 경제를 위한 매개체 역할
- 사회적·환경적 생산비용의 내부화 가능
- 가난과 자원의 불평등한 문제 해결

2 지역화폐의 역사

2.1 지역화폐운동의 일반현황

현대적 의미의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의 코목스 밸리라는 지역에서 마이클 린턴이 만든 레츠(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LETS)가 최초이다. 경기침체로 지역의 주요 산업이었던 목재업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발생한 실업 등으로 인해 시장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의 감소로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이 어려워지자 마이클 린턴은 갖고 있는 기술만으로 교환을 시도하다가 새로운 유형의 화폐제도인 레츠를 고안했다. 처음에는 일대일 교환만을 시도하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를 다자간 교환으로 극복했다. 1985년에는 500명의 회원을 통해 연간 30만 달러 가치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품목은 매우 다양했다.³ 1987년에는 캐나다 여러 지역에서 레츠가 생겼으며, 이후 영국과 호주 등지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2000년 중반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1,500여 개의 레츠가 운영된 바 있다.

영국에서는 1985년 놀위치에서 최초의 지역화폐제도가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확산되었다. 1992년 초에만 해도 영국에는 겨우 5개의 지역화폐제도가 있었으나 1992년 말에는 40개, 1999년 말에는 270개로 증가하였다.

지역화폐제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여성 또는 예술가만 회원이 되

³ 크롤, 조너선, 2003,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박용남(역), 이후.

는 레츠, 여러 레츠가 모여 만들어지는 멀티 레츠, 한 대규모 레츠 안에
하부 레츠가 생기는 레츠 인 레츠 등이다. 과거의 지역화폐운동은 대부
분 경제 불황기에 유행을 하다가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사라졌으나,
현재의 지역화폐운동은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지역운동과 생태운동의 결합 및 대안적 삶을 지향하는 운동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2-3 지역화폐의 역사

2.2 지역화폐 연구의 흐름과 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안사회 모델의 하나로 지역화폐운동을 주목하
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2000년대 초-중
반을 거쳐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현황을 분석한 연
구(이숙례, 1999; 이득연, 2000; 류은화, 2000; 임종환, 2004; 강환세,
2005)와 관련 공동체의 사례 연구(박용남, 2001; 김현옥, 2007), 참여자
동기를 분석한 연구(권인천, 2001),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한 연구(김형
용, 2000), 소비자 행동을 통해 소비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천경희,
2006; 양정하, 2009), 경제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권희선, 2006), 공동
체 화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연구(강수돌, 2002) 등이 있다.

3 지역화폐의 유형 및 분류

3.1 지역화폐의 유형⁴

3.1.1 레츠(LETS)

1) 의의 및 거래방법

지역화폐거래제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S, 이하 레츠)는 회원 간에 통용되는 화폐 발행, 또는 계좌 개설을 통해 돈이 없이도 회원 간에 재화와 용역을 주고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먼저 지역화폐와 시중화폐의 가치를 환산 가능하게 결정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섞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잔액인 0인 계좌를 개설하고, 어떤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 받게 되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은 등록비,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세금 관련 사항이나 관련 기업의 참여 독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목적 및 혜택

레츠를 통해 이룩하고 하는 목적과 지역주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①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다.
- ②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발전시켜나간다.
- ③ 지역사회주민과 상호 교류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힘을 길러 나간다.
- ④ 기술을 주민끼리 교류하면서 기술이 향상된다.
- ⑤ 주민들이 서로 만나면서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이 강해진다.

⁴ 이창우, 2010, “지역화폐에서 찾는 품앗이의 새로운 기능성”, H₂O 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 주최 토론회 자료집.

- ⑥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를 사귀게 된다.
- ⑦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 ⑧ 훌륭한 선물증서를 받을 수 있다.
- ⑨ 지역사회 내에서 직거래하면서 돈이 절약된다.
- ⑩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312 아워즈(hours)

아워즈(hours)는 레츠와 기본적인 개념이 같으나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아워즈는 레츠처럼 계좌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1아워즈(10달러 가치), 2아워즈, 1/2아워즈, 1/4아워즈 등 화폐의 단위를 세분화하여 소규모거래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아워즈를 달러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주민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상점, 음식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13 타임달러

앞의 두 제도가 지역경제 및 화폐에 중점을 둔 것임에 비해 타임달러는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에 가까운 제도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한 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타임달러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를 등록한 후 각자에게 맞는 봉사내용을 타임달러 중개소에서 연결해 준다. 타임달러제도는 봉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1시간당 1달러를 봉사자에게 지급하고, 계좌에 기록한다. 이렇게 비축된 달러는 본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본인 이외에도 수요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레츠와 달리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3.2 지역화폐의 분류⁵

3.2.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1) 민간이 발행하는 지역화폐

민간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역사는 17세기 웨이커 교도인 존 벨러스(John Bellers)가 실업자에게 노동지폐(Labor Notes)라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⁶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중앙사무소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로부터 노동지폐를 받은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이 지역화폐를 순환시켰다. 비슷한 방법을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사용했는데, 그는 1832년 ‘국가 평등 노동거래소’를 열어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하였다. 1849년 프랑스 사회주의자 푸르동이 파리에 인민은행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지역화폐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부족한 국가화폐의 보완으로 수많은 지역화폐가 세계 대공황기에 만들어졌는데, 1933년 뉴욕주 버팔로의 Larkin 상품 채권증서(Merchandise Bond)가 대표적이다. 1931년 독일 Schwanenkirchen에서 채광노동의 댓가로 wara라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마을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아워즈, 타임달러, 레츠 등도 민간부문의 주요한 지역화폐이다.

2) 공공이 발행하는 지역화폐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대표적인 것은 대공황 임시지폐(Depression Scrip)인데, 1932년 오스트리아의 Worgl이라는 마을에서 사용되었다. 높은 실업률로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 봉급의 반을 임시지폐로 지급하고 지방기업이 임시지폐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였다.

⁵ 이창우, 2001, “지역화폐운동의 의의 및 참여방안”, 수원환경운동센터 주최 제8회 초중등교사 환경연수 강의자료집.

⁶ M. W. Danson, 1999, “The Other Side of the Coin: Local Currency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Regional Studies, Vol. 33, No. 1, pp. 63-72.

이 임시지폐는 은행에서 액면가의 98%로 현금 교환이 가능했으며, 임시지폐가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진 이자율을 도입하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자 화폐공급에 대한 국가적 통제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은 임시지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기의 미국에서 3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임시지폐를 발행하였다.

3 2 2 가치기준에 따른 분류

- North(2000)는 지역화폐 가치의 기준을 시간, 또는 시중화폐에 두는지에 따라 나누고 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화폐제도로는 탈렌트(Talents), 타임머니(Time Money), 이타카 아워(Ithaca Hours) 등이 있고, 시중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린달러(Green Dollars), 레츠, Deli Dollars, 비어(WIR), Tlocs 등이 있다.

표 2-1 지역화폐의 가치기준에 따른 분류

분류		법정 화폐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민간 발행	노동지폐(Labor Notes) - 존 벨러스(John Bellers)가 실업자에게 발행, 17세기 - 로버트 오웬 (Robert Owen), 1832
		Larkin 상품 채권증서(Merchandise Bond), 1933 - 뉴욕주 버팔로의 Larkin 주식회사가 발행
		Wara -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Schwanenkirchen, 1932
가치 기준에 따른 분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	델리 달러, 이타카 아워즈, 타임 달러, 레츠 등
		오스트리아의 Worgl 지역의 대공황 임시지폐, 1932 아르헨티나의 Salta Province 지역 임시지폐, 1985
		LETs Scheme, Talents, Grain of Salt, Time Money, Ithaca Hours
가치 기준에 따른 분류	시중화폐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값을 책정	그린 달러, 레츠, 델리 달러, 비어(WIR), Tlocs

지역화폐의 의의

지역화폐는 법정화폐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중 가장 큰 의의는 지역의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인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4.1

삶의 근원적 변화

지역화폐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인간적 관계맺음의 기능을 높게 평가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개별화된 사람이 지역화폐의 회원이 되면서부터 이웃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회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4.2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화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가깝게 연결시킬 수 있다. 자기 마을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며,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한다. 일반 경제 시스템에서는 타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여 대형 매장에서 유통시키지만, 지역화폐 시스템은 로컬푸드와 같이 지역의 농·특산물이 등을 직거래로 교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도 살리면서 소상공인의 생계도 보장할 수 있다.

4.3

환경보전 기여

지역화폐는 물건이나 도구를 빌려 쓰거나 교환하여 쓸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회원 중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제품을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를 위해 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곳의 지역화폐가 생활협동조합이나 유기농 농산물 단체와 연계하여 회원들의 건강과 생태계의 보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4 4 지역의 문화 살리기

현대 사회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축제 및 공연 등을 지역화폐시스템에 도입해 지역의 문화를 살릴 수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역화폐로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축제의 각종 공연을 진행하는 예술인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5 공동체의 재구성

초기의 지역화폐는 대안 경제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 이르러 공동체가 부각되고 있다. 아베 요시히로(1999)는 “글로벌 경제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중요한 목적이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수돌(2002)은 “소유와 축적 중심의 생활방식을 관계와 나눔 중심의 생활방식으로 바꾸는 지역화폐가 곧 공동체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III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 1 해외 지역화폐
- 2 국내 지역화폐
- 3 지역화폐 운동의 한계 및 실패 요인



III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1 해외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역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화폐 부족과 이로 인한 구매력 저하에 대응, 지역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나 지역사회 운동가에 의해 시작되기도 하였다. 지역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유럽 국가와 북미는 대부분 지역화폐를 허용하고 있다.⁷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캐나다의 레츠, 미국의 이타카 아워(Ithaca Hours)와 타임달러(Time Dollar), 스위스의 비어(Wir) 등이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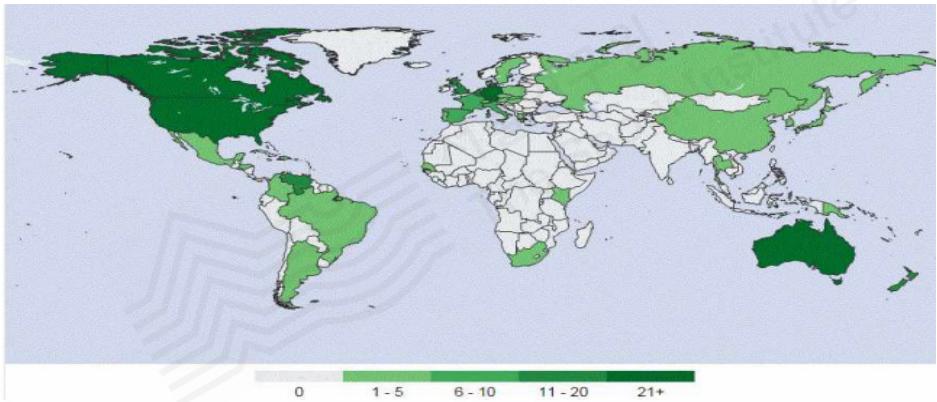


그림 3-1 세계 지역화폐 분포 지도

출처 : Complementary Currency Resource Center(www.complementarycurrency.org)

* 각 국가에서 운영되는 지역화폐의 개수를 색깔로 표현함. 35개국에 3000여 개의 지역화폐가 있음.

⁷ 천정희 · 홍연금 · 윤명애 · 송인숙, 2010, 「윤리적 소비」, 시그마프레스.

⁸ 차성란,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지역화폐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pp.67-82.

국내 지역화폐

2.1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시작

우리나라는 두레, 품앗이, 계가 있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화폐는 1996년 ‘녹색평론’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2년 뒤인 1998년 3월에 국내 처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이 미래화폐란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IMF 사태 이후 지역화폐운동이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대안 경제운동으로 주목받으면서 당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2.2 국내 지역화폐 현황

2.2.1 경기지역

1) 과천시

과천품앗이는 한밭레츠와 함께 가장 오래된 한국 지역화폐 중 하나로 2000년 과천시의 보조금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 품앗이를 월례회의 중심으로 거래하다 최근 거래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레츠 시스템으로 통장방식과 계정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과천의 어울림 품앗이는 무지개교육마을이라는 대안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2006년경 시작했는데,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 확대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 성남시

성남 지역화폐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성남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문화 자원 간의 연계와 관련시설 이용 등에 사용된다. 시민들이 연주장소나

강습 등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가입 시 개인은 10만 넘실, 단체는 30만 넘실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1넘실=1원). 넘실을 사용하면 다른 곳에 다시 공연이나 강습으로 갚는데, 문화 부문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2 2 인천광역시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푸른생협, 참좋은 품앗이, 인천평화의료생협, 콩세알 도서관, 밝은 마을, 강화여성의 전화, 배다리 문화공동체, 인천 여성노동자회, 이웃사랑 교회 등 9개 단체가 연대하여 2010년에 3개월 과정으로 지역화폐 활동가 교육훈련 과정을 개최하였다. 단체별로 활성화 정도가 다르며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지만, 모두 레츠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2 2 3 대전광역시

대표적으로 한밭레츠가 있는데, 회원들은 ‘두루’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는데,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재화와 용역 등 모든 것을 나누고 교환하면서 경쟁보다는 ‘보살핌의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체계를 만들고자 한다.⁹ 회원들은 지역공동체 화폐운동을 ‘즐거움(fun)’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레츠 참여가 즐겁기 때문이다.¹⁰ 그 외 대전 마을어린이 도서관 중심으로 동별 품앗이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풀뿌리 사람들>이라는 기관이 인큐베이팅한 예비사회적기업이 타임달러 방식으로 교육과 문화를 지역 화폐로 거래한다.

9 류동민·최한주, 2003,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한밭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pp.86-106.

10 대전 한밭레츠 홈페이지(<http://www.tjlets.or.kr/index.html>)

서울시 지역화폐

1) 서울시 e-품앗이

서울시 e-품앗이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술, 재화 등을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한 민간복지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동체화폐 ‘문’으로 회원의 품(서비스)과 물품을 거래한다. 온라인 상에 네트워크 시스템과 웹사이트를 구축한 뒤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1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사업내용
 - 커뮤니티 회원끼리 가상화폐로 품과 물품 등을 거래
- 거래방법
 - 회원 가입 시 1인 1계좌 부여
 - 거래 당사자 간 가격 결정 및 거래 후 통장, 홈페이지에 거래결과 기록
 - 지역 품앗이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자율조직으로 운영

표 3-1 서울 e-품앗이 현황

구분	회원 수	총거래 수	개설시기	운영자
금천e-품앗이	160	127	2013.08	유정식
강남가족한울공동체	278	8472	2013.06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북e-품앗이	335	404	2013.04	강북e품앗이센터
성동e-품앗이	130	81	2013.04	성동e품앗이센터
중랑e-품앗이	305	780	2013.05	중랑e품앗이센터
서초e-품앗이	114	527	2012.05	김민자
구로e-품앗이	416	1128	2012.05	구로e품앗이센터
관악e-품앗이	398	805	2012.06	류춘신
마포e-품앗이	339	726	2012.05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광진e-품앗이	466	909	2011.06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강서e-품앗이	244	836	2011.05	강서e품앗이센터
도봉e-품앗이	31	3	2011.07	도봉시민회
노원e-품앗이	251	384	2010.11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양천e-품앗이	225	272	2010.11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은평e-품앗이	1913	3925	2011.05	장형선

○ 거래내용

- 금천구

- 총 거래 수 127건, 온라인 거래 수 120건으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4년 현재 거래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 강남구

- 강남구의 경우 총 거래 수는 8,472건으로 e-품앗이 중 가장 많은 거래 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홈페이지 상 등록 거래 수는 물품과 품을 합쳐 모두 11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추진하던 오프라인 거래 중심의 S-money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3년간 예산 지원을 받았다가 2013년부터는 e-품앗이 거래를 시작한 탓으로 오프라인 중심 거래에서 온라인 중심 거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 강북구
 - 총 거래 수 404건, 온라인 거래 수 12건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원활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 성동구
 - 총 거래 수 98건, 온라인 거래 수 54건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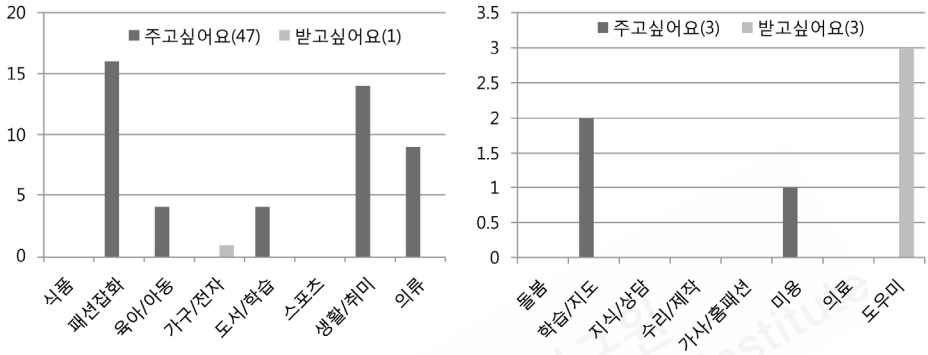


그림 3-2 성동구 거래 내역

- 중랑구
 - 총 거래 수 780건, 온라인 거래 수 179건으로 같은 시기에 개설된 강북구에 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활발하다.
- 관악구
 - 총 거래 수 805건, 온라인 거래 수 74건으로 집계됐다.
- 마포구
 - 총 거래 수 726건, 온라인 거래 수 74건으로 집계됐다.
- 광진구
 - 총 거래 수 909건, 온라인 거래 수 67건으로 집계됐다.
- 강서구
 - 총 거래 수 336건, 온라인 거래 수 35건으로 집계됐다.

- 구로구
 - 총 거래 수 1128건, 온라인 거래 수 258건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활발한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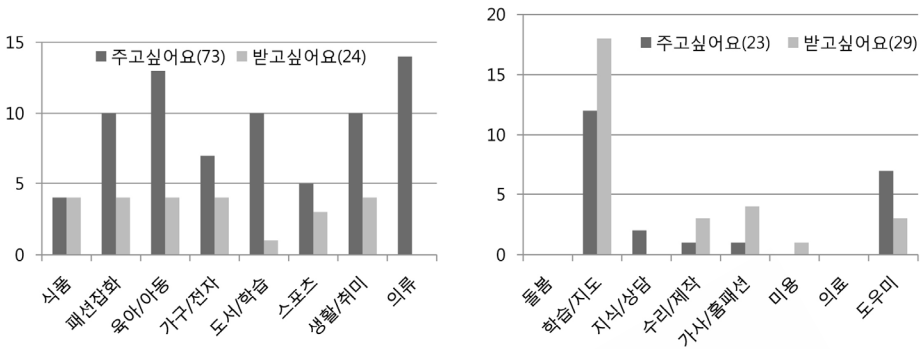


그림 3-3 구로구 거래 내역

- 도봉구
 - 총 거래 수 31건, 온라인 거래 수 3건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활발하지 않다. 회원 수도 31명밖에 되지 않으며 총 거래 수 31건이라고 적혀 있지만, 홈페이지 등록 거래 수는 모두 1건밖에 되지 않아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은 아니다.
- 노원구
 - 총 거래 수 384건, 온라인 거래 수 77건으로 2010년에 개설된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활발하지 않다. 노원구는 현재 품앗이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양천구
 - 총 거래 수 272건, 온라인 거래 수 100건으로 2010년에 개설된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활발하지 않다.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품앗이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은평구
 - 총 거래 수 3925건, 온라인 거래 수 650건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 모두 활발하다. 2011년 5월에 개설되었으며, 초창기에 조성된 다른 구 e-품앗이에 비해 활동이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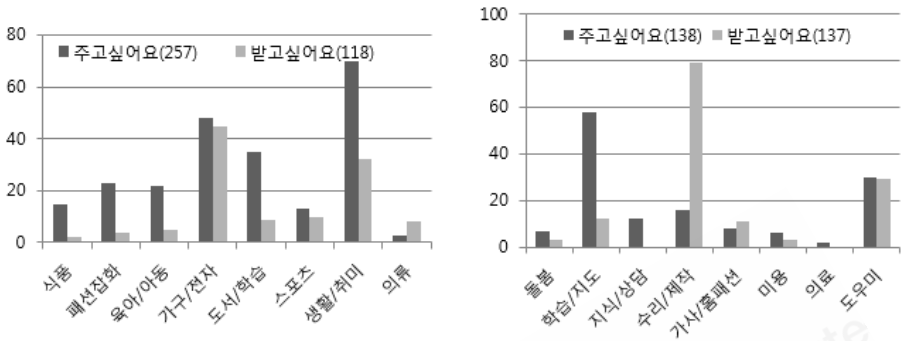


그림 3-4 은평구 거래 내역

- 자치구 e-품앗이 관계자 간담회(2014. 2. 11, 서울연구원 회의실) 의견
- 강남구

강남구 e-품앗이는 오프라인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온라인으로 다시 옮기는 데 주민이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느낀다. 따라서 홈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는 거래 내용이 제한적이다.
- 관악구

e-품앗이 사업은 3월에 공모를 시작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1~3월까지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자치구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금천구

금천e-품앗이는 공모 사업이 아닌 자립형 사업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 자율 형태로 운영되는 자생형 품앗이이다. 순전히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려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 운영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교류할 수 있는 관리센터가 따로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서초구

서초구는 e-품앗이가 없어지고 2009년에 만들어진 서초품앗이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2014년 목표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품앗이로 만드는 것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쉽지 않다. 품앗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평균연령이 높아 온라인 거래 위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성동구

성동구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서울시 복지재단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1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지역 내에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 중랑구

교환 수단이 아닌 소통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장소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행정이 주도해서 사업이 시작됐으니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지역화폐로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젊은 층이 쉽게 상용화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을 보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은평구

은평구는 자체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소그룹 모임도 활발한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홍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결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혁신적인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3-5 관계자 간담회

- 주요 활동 사례
- 은평구 e-품앗이

은평구 e-품앗이 사업은 2011년 5월 시작됐다. 다른 자치구도 e-품앗이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은평구가 가장 활발하다고 자부한다. 은평구 e-품앗이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품앗이 회원은 1,747명, 오프라인 가맹점은 54개다. 서부병원, 안경점, 미용실 등의 가맹점은 이용 가격의 10~30%를 문으로 계산한다. 품과 물품의 거래는 3,814건에 이르고, 거래 금액은 지역 화폐 1,300여만 문, 현금 4,000여만 원이다.

은평구 e-품앗이에서 세 가지 주요요소는 회원, 소그룹활동, 가맹점 운영이다. 일정한 규모의 회원을 확보하고 회원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어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소그룹을 운영하되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데 한국어배움터, 아이들 독서클럽, 영어회화, 기타교습 등 다양한 소그룹이 있다. 가맹점도 병원, 안경점, 분식점, 수선집, 미용실 등 48개 업소와 협력 중이다.

2012년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

은평구 e-품앗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인 서울품앗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림 3-6 은평구 e-품앗이 거래도 및 운영현황 (2013년 10월 기준)



그림 3-7 은평구 e-품앗이 모임

- 강남구 e-품앗이

강남가족 한울공동체는 2010년 10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주민이 느끼는 절대적·상대적 빈곤감(강남구 지역의 특성), 수혜적 복지형태 때문에 주민이 수혜대상자로 고착되는 형태를 탈피하고자 대안화폐인 ‘한울’을 통하여 회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품앗이 활동을 전개하였다(S-money 지원사업이라고도 한다).

2013년부터 강남구 전역으로 지역의 관점을 확대하였으며, 저소득 지역주민뿐 아니라 중산층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회원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남가족 한울공동체가 시작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거래 수는 19,188건이며 총 거래 액수는 63,686,903한울이다.

연도별로 총 거래 수와 총 거래 액수는 2010년 186건, 925,800한울, 2011년에는 3,766건, 18,886,400한울, 2012년에는 6,811건, 22,169,253한울, 2013년에는 8,425건 21,705,450한울이었다. 현재도 월 800~900건 정도의 거래가 꾸준히 있으며, 이는 상상 나뉘터라고 하는, 품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8 강남구 e품앗이 센터

2) 서초 품앗이센터

서초 품앗이센터는 서초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레츠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지자체가 시설과 자원, 인력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2시간만대학 프로그램은 서초 품앗이 회원이 2시간 동안 교수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다른 회원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매달 진행되고 있다.

회원이 주고 싶은 서비스와 받고 싶은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회원끼리 직접 거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노동기준을 돈이 아닌 시간으로 정하고 1시간의 노동은 내용에 관계없이 1품이 된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교환하는 ‘릴레이 방식의 다자간 품앗이’ 형식이다.



그림 3-9 서초 품앗이센터 운영모습

3) 송파 품앗이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LETS 송파 품앗이는 1999년 7월부터 송파구 지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교환제도이다. 기존의 화폐 대신 송파머니(SM)를 통해 송파구 주민 간에 품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 제도로 회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원 간 교환제도이다.

송파 품앗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이 필요하며,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송파구 및 인근 주민으로서 회원거래 약정서에 동의한 후 가

입이 가능하다. 두 달에 한번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고 월 1회의 회의가 있으며, 월평균 4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파 품앗이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가사서비스, 미술지도, 스포츠, 아이 돌보기, 도색 및 도배, 비디오기술, 생활용품 수리 및 제작, 요리, 물품거래, 건강서비스, 상담, 의류 및 양재, 외국어교육, 컴퓨터, 음악, 학습지도, 이발 및 미용, 자동차 등이며, 거래 시 가격은 회원 상호 간 결정하여 송파머니와 현금으로 지급한다.

송파머니는 유형의 화폐가 아니라 회원 간의 거래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무형의 개념적 화폐이다. 송파머니의 가치는 현금과 동일하며 실제 회원 간 거래에는 송파머니와 돈의 비율이 50:50 정도(예를 들어 회원 간에 10,000원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5,000SM과 현금 5,000원을 지불하고 구매)로 추산된다. 송파머니는 자원봉사를 하여 얻을 수 있으며 4시간 자원봉사를 하였을 경우 10,000SM이 지급된다. 이를 가지고도 물품거래 등 기존의 송파머니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장에 저축되거나 차감되어 은행예금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10 송파 품앗이 거래 통장

지역화폐 운동의 한계 및 실패요인

지역화폐 시스템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불어 지역화폐로 사고 팔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화폐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지역화폐 시스템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① 세금관계의 불명확

지역화폐를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가상의 화폐가 교환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관계를 나라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미국 이타카시는 이를 통해 거래된 내역을 세금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영업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② 운영상의 문제

지역사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회원에서 배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플러스 계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플러스 계정을 가진 사람이 지역화폐로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탈퇴하게 되고 이 시스템의 거래는 침체된다.

③ 지속적인 지역화폐제도의 운영

지역화폐제도가 구축 시 처음의 열정과 활력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초기 회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참여하기 어려워지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

질 수 있다. 또한 회원으로 처음 가입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이 멈추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림 3-11 지역화폐운동의 실패 요인

Ⅳ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

- 1 마을공동체 유형
- 2 국내 마을공동체 현황과 정책
- 3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및 시사점
- 4 지역화폐를 통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IV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

1 마을공동체 유형

1) 마을공동체의 구성형태에 의한 구분

박병춘(2012)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은 공동체의 구성방식에 따라 마을공동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 기업형 지역공동체 : 영리추구라는 기업 활동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 협업형 지역공동체 : 상부상조라는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반을 두어 협동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 :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시민운동 영역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2) 마을공동체의 사업성격에 의한 구분

마을공동체는 사업성격에 따라 재정사업형, 풀뿌리 운동형, 기업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¹¹

¹¹ 김선기(2012)는 협동조합형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풀뿌리 운동형이나 마을기업형, 재정사업형 모두에 게 속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의 조직·운영원리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가지로 정리하였다.

표 4-1 구성형태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유형화

구분	마을공동체 종류
기업형 지역공동체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농어촌 공동체회사 - 자활공동체 - 주거복지사업단, 주거복지공동체 -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협업형 지역공동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농수협, 업연초조합, 산림조합 · 2차 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3차 산업: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소비자 조합 - 영농·영여조합법인, 작목반, 들녘공동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주민자치회(부녀회, 청년회 등)
풀뿌리 운동형 지역공동체	- 생활문화공동체 - 각종 귀농·귀촌인 단체 -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등 - 로컬푸드, 도시농업, 도농교류 관련 단체 - 기타 각종 공익형 풀뿌리공동체 운동 단체

표 4-2 사업성격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구분

사업유형	성격	정부지원	사례
재정 사업형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정부주도	- 사업비 - 예산충당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체험마을사업
풀뿌리 운동형	-자활, 환경, 복지, 주거, 지역만들기 -자생적 시민단체 주도	일부보조	-자활공동체사업 -자활주거복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기업형	-사회적 경제활동 -비즈니스방식 운영	일부보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출처 : 김선기(2012)에서 일부 수정

2.1 중앙정부 시책

2.1.1 중앙부처 지원사업 변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4. 22)으로 2010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이 통·폐합되어 재편되면서 부처별 마을단위 지원 사업이 포괄보조금으로 시·군·구에 지원되었다. 여기에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단위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2.1.2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종류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통합되어 크게 주거지 및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분류된다.

- 주거지 재생: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정비, 주택의 직접 건설 또는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 중심시가지 재생: 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도시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상업, 환경 등의 기능을 단독·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
- 기초생활 기반확충: 주민과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
-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양성 과정, 관련 센터의 운영·홍보·교육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

최근 지역 일자리 창출이 중요 정책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각 부처는 커뮤니티 기반 지역 활성화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기업육성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¹²는 이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름 짓고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다른 부처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여성가족부의 농촌 여성 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2.2.1 안전행정부 - 마을기업¹²

안전행 정부는 산업화·도시화로 사라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9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인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1년 말 550개로, 2013년 6월 기준으로 마을기업은 자립형¹³ 마을기업 623개를 포함하여 1,024개가 활성화되어 있다.

2.2.2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수익금을 주주나 소유자에게 배당하기보다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한다.

국내에서 2003년부터 추진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단기간의 임시직·저임금이라는 지적에 따라 영리 활동이 고용 창출과 사회적 재투자로 연결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

¹² 이 부분은 ‘김현호, 2013, 『지자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였음.

¹³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현재 보조금 지원 없이 자립하여 운영 중인 마을기업

적기업육성법은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총 828개이다.

2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231 주요 사업 내용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된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모임지원 56개, 마을 계획수립지원 26개 사업 등이다.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는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2013년의 15개 주민제안사업은 다음 표와 같고, 기반조성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과정(553명 교육) 등이 있다.

232 2013년 마을지원사업 예산

서울시의 201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2개인데, 주민제안사업 197억 원, 기반조성사업 25억 원으로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신청한 주민제안사업을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심사선정을 하여 선정되면 사업참여자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4-3 주민제안사업 현황

분류	사업명	사업부서	사업예산 (백만 원)
주민 제안 사업	1. 아이 잘 키우는 마을공동체 형성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1,000
	공동육아 활성화	출산육아담당관	610
	2. 서울 도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과	1,301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0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소상공인지원과	300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한양도성도감	73
	3. 도서관, 북카페 등 문화인프라를 마을공동체 사랑방으로 본격 활용		
	마을북카페 조성(마을도서관 활성화)	서울도서관	2,500
	청소년 휴카페(마을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아동청소년담당관	500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문화정책과	2,088
	마을기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		
	마을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과	6,298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일자리정책과(청년일자리허브센터)	228
	4. 에너지, 안전 등 생활밀착형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녹색에너지과	300
	안전마을 활성화	도시안전과	1,000
	5. 주민제안사업 지원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담당관	2,430
	우리마을프로젝트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382
기반 조성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	문화예술과	6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100
	마을박람회 개최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179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307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318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1,353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등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211

출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실, 2013, 「마을공동체 1년, 성과와 과제」 자료집.

비판적 의견

1) 마을공동체사업 개념 불명확

마을공동체사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워 한다.¹⁴

2) 주민참여 부족

사업이 경쟁방식으로 선정되고 성과와 평가 등이 행정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민과 행정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거의 자율적 공동체 활동이 행정 체계로 포섭되면서 활동방향과 방법 등의 과도기적 문제가 발생한다.¹⁵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서울시와 종합지원센터 등의 사업운영지침과 선정·평가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반자적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서비스를 파편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을 공동체로 내부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립적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식부족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이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사업의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기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공동체에 집중될 수 있다.

¹⁴ 박현찬, 2012,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지원의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¹⁵ 신원철, 2013, “마을사업 예산지원과 주민 자생력 제고”,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 pp.35-47.

3.1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마을공동체 성공 사례

1) 서울 성미산마을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성미산마을은 독특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전개된 곳으로, 1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 속에서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 이웃, 고향’을 실현하면서 ‘도시 속의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국내 최초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후, 여기에 참여한 이들이 성산동 일대에 모여 살게 되었고 2003년에 일어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마을과제로 해결한 후 ‘성미산마을’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다. 성미산 공동체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성미산학교(대안학교) 등을 꾸리며 더욱 성숙해졌다.¹⁶ 성미산마을에서는 되살림가게를 중심으로 ‘두루’라는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가 필요한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문화·복지돌봄·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작은 나무’ 카페 등 마을기업 20여 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보육, 두레생협, 마을극장, 성미산학교 등이 이 마을의 특징적인 활동이다.

“성미산마을 지역화폐 ‘두루’는 ‘되살림’ 가게가 만들어지던 2007년 겨울에 생겨났다. 옷, 책, 신발, 가방과 장난감, 학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게에 가져가면 돈 대신 두루를 지급한다. 두루는 성미산 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 미니스톱에서 커피를 사 먹거나 마을극장 공연을 볼 때도 돈 대신 사용한다. 작년에 생긴 동네책방 개동이네 놀이터에서 책을 살 때도 두루를 쓴다. 물론 전액 현금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두루로 사고 팔 수도 있다.”

- 2013년 12월 5일 성미산 되살림가게 자원봉사자 인터뷰

¹⁶ 한상훈, 2012, “성미산 마을 연구: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영국 토트네스¹⁷⁾**

토트네스는 영국 잉글랜드 데본 지역을 따라 흐르는 다트강 하구에 있는 소도시이다. 현재 토트네스의 인구는 8,000명으로 추산되며, 지역건강과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해가고 있다. 토트네스 파운드를 사용하는 지역화 폐운동은 2007년 3월, '전환도시 토트네스(Transition Town Totnes, 이하 TTT)'라는 명칭의 비영리조직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시민 자율적으로 30여 개의 지역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중요사항은 TTT Ltd.라는 조직의 유급활동가들이 결정한다. 1토트네스 파운드의 가치는 영국의 화폐단위인 1파운드와 동일하며, 2008년 9월 기준으로 70여 개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3) **영국 브릭스톤¹⁸⁾**

브릭스톤은 영국 런던 남부에 있으며 길거리 시장과 소매를 위주로 한 상업이 발달한 곳이다. 브릭스톤 파운드는 2009년 9월 17일에 처음 도입되어 80여 개 상점에서 이 지역화폐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170여 개로 늘어났다. 다른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브릭스톤 파운드도 국가통화인 파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브릭스톤 파운드는 1파운드의 가치와 같고 발행점에서 브릭스톤 파운드로 환전한 후 사용한다.

브릭스톤 파운드의 특징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점이다. 2009년 9월 17일에 발행된 지폐는 201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파운드화나 그 이후에 유통될 브릭스톤 파운드로 환전해야 한다. 현재 4가지 종류의 지폐가 유통되고 있으며 지폐에 인쇄된 인물들은 환경운동가인 제임스 러브록이나 지역운동가인 올리브 모리스와 같은 지역의 유명 인사이다.

17 토트네스 파운드 홈페이지(<http://www.transitiontowntotnes.org/totnespound/home/>)

18 브릭스톤 파운드 홈페이지(<http://brixtonpound.org/>)



그림 4-1 브릭스톤 파운드 홍보 리플렛



그림 4-2 브릭스톤 파운드

4) 영국 루이스¹⁹

루이스(Lewes)는 영국 잉글랜드 이스트 서섹스 카운티(East Sussex County)에 있는 마을로 18세기에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 지방행정과 교육 중심지이다. 현재는 원예농업 외에 농기구, 시멘트, 맥주, 비누 등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루이스 파운드는 2008년 9월에 유통이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1루이스 파운드권만 사용하였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만 루이스 파운드 이상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2009년 8월에 처음으로 화폐 회수가 진행되어 1루이스 파운드권과 함께 5, 10, 20루이스 파운드권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현재 10여 개의 루이스 파운드 발행지점이 있으며 150여 가맹점에서 루이스 파운드의 사용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¹⁹ 루이스 파운드 홈페이지(<http://www.thelewespound.org>)

- * 발행점에서 루이스 파운드를 구입해 가맹점에서 루이스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 루이스 파운드 시스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루이스 파운드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다. 루이스 파운드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에 대금으로, 직원에게 월급으로 또는 쇼핑을 할 때 루이스 파운드로 지급이 가능하다.
- * 1루이스 파운드당 5펜스의 금액이 라이브 루이스 기금(Live Lewes Fund)의 담보로 저장 잡히게 되며 이 기금은 지역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 * 루이스 지역발전을 위해 루이스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



그림 4-3 다양한 업종의 상점에서 취급되고 있는 루이스 파운드

5) 미국 버크쉐어(Berkshares)

버크쉐어 주식회사(Berkshares Inc.)는 2006년 9월 29일 뉴 이코노믹스 연구소(New Economics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버크쉐어 지역화폐를 만들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버크셔셔(Berkshire) 카운티에서 현재 390여 가맹점이 버크쉐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트너관계를 맺은 5개 은행의 13개 지점에서 연방통화를 버크쉐어로 환전할 수 있고, 전산 이체와 ATM, 대출 프로그램 서비스도 제공한다. 1, 5, 10, 20, 50버크쉐어권이 있으며 환전율은 달러 대 버크쉐어는 95 대 100다.

6) 캐나다 솔트스프링 섬²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속해 있는 솔트스프링 섬은 캐나다 남부 만의 조지아 해협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은 섬이다. ‘지속가능한 솔트스프링 섬 연합’에서 논의한 결과 솔트스프링 달러가 만들어졌다. 연합에서 다양한 대안화폐제도를 검토한 결과 어떤 지역화폐도 등가로 국가통화와 교환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화폐를 2년간 사용한 후 국가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게 하였다. 지폐 뒷면에 솔트스프링 고유의 도안을 넣어 유효기간 이후에도 소장가치를 가지게 하였다. 1만 명의 지역 주민, 연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 전 세계의 화폐 수집가를 감안하면 잠재적 가치는 상당했다.

2001년 7월 17일 지역화폐의 유통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구인 솔트스프링 섬 통화기금은 주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단체는 솔트스프링 섬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디자인, 발행, 유지하며 지역상업 발전과 주민 친선도모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기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섬의 우체국, 저축신용조합, 몬트리올 은행, 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관과 협의를 통해 솔트스프링 달러는 캐나다 달러와 동일 가치로 통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2001년 9월 큰 지역행사인 농민회 바자회에서 최초로 유통되었다.

7) 호주 멜라니²¹

호주 퀸즐랜드주 멜라니시는 인구가 4000여 명인 작은 마을이다. 멜라니시는 1989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 300여 곳으로 확산시

²⁰ 솔트스프링 달러 홈페이지(<http://saltspringdollars.com/index.html>)

²¹ 해남신문, 2014. 01. 24, “월급도 지역화폐로 호주 멜라니레즈”

킨 본산이다. 마을 중심에 있는 7평 남짓한 레츠 운영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지역화폐 소식지를 발행한다. 델라니 마을 사람의 10% 정도인 약 410명이 레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식지를 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월 2회 열리는 마을 시장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단순성, 회원 수의 적정 유지, 과도한 마이너스나 플러스 계좌의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8) 일본 니시지바 상가 지역

백화점과 대형 상가의 등장으로 쇠퇴해 가던 지바 대학교 인근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특산물인 ‘땅콩’에 착안하여 우표형 지역화폐 ‘피너츠’를 만들어 1999년에 도입했다. 처음에는 상가 상인의 이해도가 낮아 지역화폐 사용을 꺼렸으나 2000년 3월 지역 상점가 대표인 카이호가 자신의 미도카 미용실에서 피너츠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이후 피너츠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과 쉬운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피너츠는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간 관계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²² 피너츠를 통해 지역의 주인의식이 확장되어 다양한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공동체를 통한 지역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²³ 또한 지역 SNS인 ‘아미피’를 6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미피에 4,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벤트 홍보, 정보 교환,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SNS를 통해 지역화폐 제도가 활성화된 좋은 예이다.

²² 일본 정부는 지역화폐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니 지원받은 돈을 쓰기 위해 운영시스템과 웹사이트 등을 구축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 중단된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화폐 운영이 어려워 지역화폐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역화폐를 돈으로 교환하는 형태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모으기 시작했고 지역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²³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구집”, 성남문화재단 자료집.

9) **일본 아만토²⁴**

일본 아만토²⁵마을은 오사카 역에서 전철로 두 정거장 떨어진 작은 마을로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면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시작됐다. 아만토 마을의 공동체운동은 2001년 당시 120년 된 2층짜리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아만토 카페'를 만들며 시작됐다.²⁶ 아만토 마을에는 마을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인 아만토화폐가 있는데, 스탬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각종 교육 수강료, 임대료 등으로 아만토화폐를 사용한다. 아만토 마을 주민은 엔화 없이 식사와 차, 술을 마시고,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아만토 화폐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이는 지역화폐의 순환을 촉진시켜 소비와 동시에 공급하게 해서 순환적인 자급 자족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다.

지역화폐제도와 함께 1일1선(1日1善)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루에 1회 선행(善行)을 하면 1아트(art)를 지급한다. 선행은 마을에 유익한 일을 한 경우 시간과 무관하게 인정되는데, art는 아만토화폐와 달리 교환가치가 없는 무상의 증표로 공동체적인 선행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art는 아만토마을에서 신용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art의 보유현황은 회원에게 공개된다.

3 2 **사례를 통해 본 성공요인 및 시사점**

지역화폐제도가 지역 공동체에서 꾸준히 유지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화폐는 소규모 집단을 지향함으로써 공동체

²⁴ 조은영, 2012, “지속가능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²⁵ 아만토는 한자로 천인(天人)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다.

²⁶ 이 카페를 거점 삼아 인근의 작은 점포들을 개보수해 여러 곳에 가게를 냈다. 2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독립영화 전용 극장과 전용 공연장(천연예술연구소)도 만들었다. 극장과 공연장 바로 옆에는 작은 바(Bar, 슈카)가 있어 영화를 보고 나서 차나 술을 한 잔 할 수 있게 했다.

의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여성 레츠나 예술가 레츠처럼 소규모 지역 화폐가 모여 만들어지는 다중 지역화폐제도(multi-LETS)도 가능하다. 회원이 너무 많아진 지역화폐제도 안에서 마음 맞는 회원끼리 소규모의 여러 지역화폐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²⁷

둘째, 지역화폐는 지역 내의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여 의미 있는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과 결합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워민스터의 ‘백포드 공동체 센터’에서는 회원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해주었고, 회원은 지역화폐인 ‘링크’로 요금을 지불했다. 18개월 간 치료비로 약 6만 파운드(1억 20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되었으며, 센터는 회원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²⁸ 이와 유사하게 빈민 지역은 주택 문제를, 교육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결합시킬 수 있다.

3.3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 활용방안

지역화폐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나누고, 사회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체되거나 유지되는 되더라도 거래가 적어 유명무실한 예도 있다. 이 같은 성공과 실패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 운영집단의 노력이나 회원의 협력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마을공동체에서 성공적인 지역화폐제도로 안착시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커뮤니티 형성 시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에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한다. 지역화폐의 대부분 사례들을 보면 대면성을 확보할 수 있는 100~200명 규모가 많다. 적은 회원 구조로 지역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

²⁷ 박용남, 2001,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실험”, 녹색평론, 60(9-10).

²⁸ 니시베 마코토, 2002, “지역화폐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65(7-8).

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중심이 되는 회원의 열정, 조정력, 창의력 등의 역량이 성공 여부가 된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4-4 지역 화폐단체 운영의 코디네이터 육성 방법

둘째,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시 지역화폐의 활용방안으로 지역의 공유과제 해결방안이 있다. 지역 문제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 속에 회원이 협력하여 해결해 가면서 성취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지역 현안으로 복지, 교육, 환경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지역화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협력관계 구축 및 확대, 자기계발, 해결 사업 시행 등이다. 과제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지역화폐단체의 규모와 방향은 다양하고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그림 4-5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주민 공유과제 해결 방안

셋째, 지역커뮤니티 운영관리 시 민관협력에 의한 구조적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돼야 한다. 운영관리조직의 설립방법과 형태는 지역화폐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지역화폐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운영조직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운영조직의 신뢰성은 회원 간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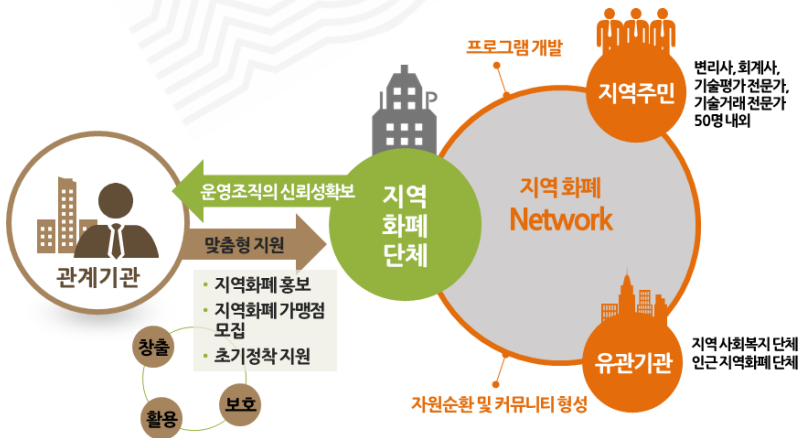


그림 4-6 민관협력에 의한 구조 형성

4.1 주민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 자치구, 서울시 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풍요로운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한다.
- 시민의 공감대 확산
 지역화폐 포럼, 워크숍, 공청회, 박람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화폐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내용과 모범사례가 실려 있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지역화폐 학교 운영,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지역화폐 강좌를 진행한다.
- 지역화폐 관련 법제도 및 조직체계 정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용처 허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과 아파트 관리비를 지역화폐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 주택본부, 서울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체제도 강화한다.

4.2 마을공동체와 연계 강화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지역화폐 마스터플랜을 연계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중기(2020), 장기(2030) 등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마을공동체 단위 지역화폐 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 마을공동체 차원의 복지와 공동체 의식, 사회적 약자의 기초수요를 고려한다.
- 공동체 문화예술, 에너지절감 마을 등 지역현안과 연계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이를 위해 지역화폐 기반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43 지역화폐 시스템의 개선 및 다양화

- 기존 서울 e-품앗이 시스템 개선
 통화단위나 시스템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시스템 사용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하며 회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년 중 9개월만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담당자 봉급 지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1년간 지원이 지속될 수 있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3년 지원 후 졸업하는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훈련 지원 등을 포함해 사업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젊은 계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다문화 가정 모임, 외국어 학습 모임 등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e-품앗이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시스템 실험 및 도입
여성, 노인, 장애인 전용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수표, 통장, 코인, 지표, 카드 이용을 확대한다. 특히 노인은 온라인 시스템 사용을 불편해 하므로 통장이나 지역화폐 지폐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타임 달러 등 시간 기준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근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거래 시스템을 5대 권역별로 구축한다.
서울시 전역에 통용되는 통합 지역화폐를 도입하되,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4 4 마을공동체 결합 지역화폐 프로그램의 다양화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과 지역화폐의 연계
기존 지역사회 내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는 한편, 지역사회 외부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지역화폐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거래되는 지역화폐를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화폐 실패사례집 발간
지역화폐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계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 도시양봉, 도시양계와 지역화폐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타카 아워 투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화폐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지역화폐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지역화폐 강좌를 포함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

지역화폐로 꽃피우는 풍요로운 서울 마을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에 적합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장기발전을 위해 세 가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체계(안)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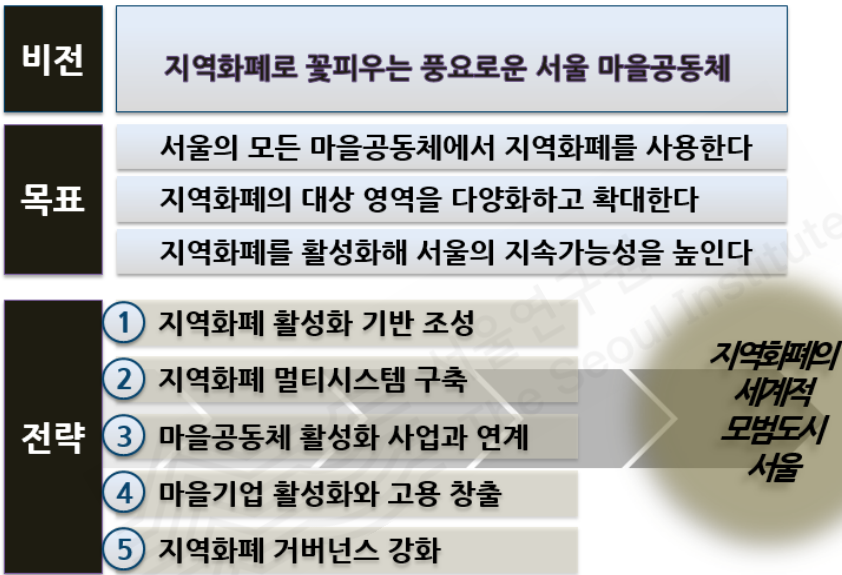


그림 4-7 서울시 지역화폐 장기발전 전략 비전체계(안)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서울시 지역화폐 제도 개선 필요
- 2 지역화폐 제도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연계
- 3 연구결과 시정활용 실행계획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서울시 지역화폐 제도 개선 필요

1.1 행정기관 주도의 서울시 e-품앗이 시스템의 해결 과제

서울시 e-품앗이 시스템은 현재의 행정기관 주도 방식에서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풀뿌리 공동체 기반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벼룩시장이나 물물교환의 장치럼 운영되고 있어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자원 봉사나 서비스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마을공동체를 연계하고 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은평구 e-품앗이(2011.5 개설)는 총거래 수 3,925건 중 온라인 거래 수가 650건에 불과하다(오프라인 거래 대부분은 벼룩시장이나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되고, 온라인 거래 650건 중 물품거래는 375건, 서비스 거래는 275건이다). 2013년 4월 개설된 성동 e-품앗이는 총 거래 수 98건 중 온라인 거래 수가 54건밖에 되지 않는다(온라인 거래 중 물품 거래는 48건, 서비스 거래는 6건으로 대부분 물품거래이다).

지역화폐 거래 시스템의 다양화를 통해 획일화된 현행 서울 e-품앗이 시스템의 한계 극복이 시급하다. 15개 시스템이 거래 방식이나 내용뿐 아니라 지역화폐 이름까지 거의 같은데 통화단위는 문, 거래되는 서비스는 품이라고 하고 거래되는 물건은 물품으로 15개 자치구가 거의 같은 것이 현실이다(최근 짝, 한울, 통 등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지역화폐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지역화폐가 마을공동체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가 부족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계 극복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화폐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심사, 선정, 평가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 주민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로 주민참여 촉진이 가능하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지역화폐 학교 강좌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화폐 제도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연계

먼저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 시민의 공감대 확산, 지역화폐 관련 법제도 및 조직체계 정비 등 주민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지역화폐 마스터플랜을 연계하고 지역화폐 기반의 마을기업 육성 등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화폐 제도 간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과 지역화폐를 연계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화폐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와 결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결과 시정활용 실행계획

3.1 연구결과의 활용유형

- 정책방향 제시 / 정책개선
 - 서울시 지역화폐의 장기적인 비전, 3대 목표, 5대 전략, 주요 사업 제시
 - 주민 주도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안
 - 마을공동체와 지역화폐 연계 강화 방안 제시
 - 다양한 지역화폐 시스템과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지역화폐 프로그램 제안
 - 지역화폐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시
- 제도개선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품앗이 시스템의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기타(정보전달)
 - 지역화폐의 국내외 사례 제공
 - 서울시 7개 자치구 e-품앗이 운영 담당자의 건의사항 정리

3.2 연구결과의 예상 활용계획

- 서울시 지역화폐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 복지재단의 e-품앗이 시스템 개선 작업 시 연구결과 활용

3.3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

-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과 관점의 통합

3.4 기대효과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
- 서울시 공유경제 정착에 이바지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대담, 2002, “NAM과 지역화폐”, 『녹색평론』, 65(7-8).
- 가라타니 고진, 2003, “NAM에 대하여”, 『녹색평론』, 68(1-2).
- 강수들, 2002, “이윤과 권력을 동시에 넘는 실험: LETS운동”, 『문화과학』, 32(겨울호).
- 강환세, 2005, “지역화폐운동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감사접근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미숙, 2010, 『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그린비.
- 고병권, 2005, “서유럽에서 근대적 화폐구성체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도완, 2009,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생태적 대안운동을 찾아서』, 창비.
- 권인천, 200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혁범, 1998, “시장/경제 숭배시대의 민족주의와 세계화-어려운 선택을 생각하며”, 『녹색평론』, 40(5-6).
- 권희선, 2006, “지역화폐운동이 갖는 경제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그레이버·데이비브, 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교환의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정은(역), 그린비.
- 길 세이팡·콜린 윌리엄스, 1998, “레츠-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40(5-6).
- 김경희, 2010, “돌봄노동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울아카데미.
- 김동배·김형용, 2001, “지역화폐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 김상환, 2003, “화폐, 언어, 무의식”, 『철학사상』(별책 1권 4호), 철학연구소.
- 김선건, 2002, “대전문화의 성격과 문화운동”, 『사회과학연구』, 13.
- 김성훈, 2002, 『한발레츠, 그 다양한 실험을 위하여, 한발레츠 실험 3년 평가워크숍 자료집』, 한발레츠.
- 김성훈, 2004, “이웃은 답은 알고 있다”, 한발레츠 홈페이지 자료실.
- 김성훈, 2010, “호혜시장은 이미 부활하고 있다”, 한발레츠 홈페이지 자료실.
- 김성훈, 2011, “한국 지역화폐운동 단체현황”, 한발레츠 홈페이지 자료실.
- 김은실, 2002,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 문화논리와 성별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엮음,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 김종철, 1998, “보살핌의 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 41(7-8).
- 김현옥, 2007, “지역화폐 참여에 관한 연구—송파품앗이와 한발레츠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기 엮음, 2007, 「대안적 발전모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울아카데미.
- 김형용, 2000, “한국 지역화폐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식학과 석사학위논문.
- 니시베 마코토, 2000, 「지역화폐 LETS: 화폐, 신용을 뛰어넘는 미디어」, 류동민(역), 可能なるコミュニズム, 太田出版.
- 니시베 마코토, 2002, “지역화폐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65(7-8).
- 니시베 마코토, 최한주, 2003, “지역화폐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 대전참여연대, 2005, 「아름다운 대전을 위한 시민의 힘」, 대전참여자치연대.
- 류동민·최한주, 2003,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발레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9(1). pp.86-106.
- 류은화, 2000,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리에테르·베르나르, 1998, “탐욕과 희소성을 넘어서”, 「녹색평론」, 40(5-6).
- 리에어·버나드, 2004, 「돈 그 영혼과 진실 -돈의 본질과 역사를 찾아서」, 강남규(역), 참술.
- 모심과살림연구소, 2009, 「지역살림운동의 길을 찾아서」, 모심살림연구소.
- 박용남, 2001,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실험”, 「녹색평론」, 60(9-10).
- 박용남, 2005, “대안운동으로서의 한발레츠의 전망”, 「세계공동체 화폐 학술 심포지엄, 한발레츠 5주년 자료집.
- 박용남, 2009,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 운동”, 「행복한 두루마일,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10주년 자료집.
- 박현찬, 2012,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지원의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브란트·바바라, 1996, “공동체의 돈 만들기운동”, 「녹색평론」, 27(3-4).
-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문화통화 도입을 위한 일본 지역통화 연구집”, 성남문화재단 자료집.
- 신용복·조희연, 2006,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 신원철, 2013, “마을사업 예산지원과 주민 자생력 제고”,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
- 아베 요시히로·이즈미 루이, 2003, 「누구나알수있는 지역화폐입문-미래를 여는 화랑의 돈」, 전정근(역), 아르케.
- 양정하, 2009, “지역화폐운동의 성격과 과제”, 지역사회 61호.
- 이득연, 2000, “지역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도시와 빈곤 46호.
- 이숙례, 1999, “지역화폐”, 「도시문제」, 34(371).
- 이창우, 2000, “지역품앗이운동 소개”, 「제 2건국을 위한 지역품앗이운동 설명회 자료집」.
- 이창우, 2001, “지역화폐운동의 의의 및 참여방안”, 수원환경운동센터 주최 제8회 초·중·고교사 환경연수 강의자료집.
- 이창우, 2002, 한국사회 지역화폐의 현황 및 과제, 전국 지역화폐 워크숍 “새로운 돈의 얼굴, 공동체

화폐 실험 이야기”.

이창우, 2009, “지역화폐로 만드는 행복한 서초구”, 서초품앗이 사업설명회 자료집.

이창우, 2010, “지역화폐에서 찾는 품앗이의 새로운 가능성”, H₂O 청소년사랑품앗이운동본부 주최 토론회 자료집.

임종환, 2004, “지역화폐, 대안적 경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운동”, 한발레츠 자료실.

조은영, 2012, “지속가능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차성란,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지역화폐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pp.67-82.

천경희, 2004, “지역화폐 실험은 계속된다”, 『녹색평론』75, 95-103.

천경희, 2006,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험과 소비자주의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학위 논문.

천경희 · 홍연금 · 윤명애 · 송인숙, 2010, 『윤리적 소비』, 시그마프레스.

칸·애드가, 2004,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타임달러와 코프로덕션』, 구미요한센터(역), 아르케.

크롤·조너선, 2003,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박용남(역), 이후.

포티어·자나, 1998, “지역화폐-공동체를 살리는 기술”, 『녹색평론』, 40(5-6).

한상훈, 2012, “성미산 마을 연구 :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Danson, M. W., 1999, “The Other Side of the Coin: Local Currency as a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Regional Studies*, Vol. 33, No. 1, pp. 63-72.

서울연 2013-PR-65

지역화폐를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4년 2월 15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